



사순 제3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이런 식으로 취급해서 미안해!”

“사람은 자기 뼈와 살로 된 짝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창세 3, 20) 그 어머니는 생명을 낳고 보호하며, 그 생명을 위해 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싸워야 했다. 뱀의 유혹에 빠짐. 어머니의 십자가였고, 누구보다는 더 길고 고단한 정화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 불리는 마리아! 공동체는 이 마리아를 특정한 여성상으로 고정시킨다. 모범이라 말하며 획일화의 유혹도 자주 시도된다. 그가 택한 것이 하와가 못내 지키지 못한 것의 완성이라 볼 수는 없을까? 인정하지 못 하니, 씩씩했을까?

이런 시선으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여인은 이런, 저런 흠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 새 삶을 얻으려 시도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부족하지만 애쓰며 살아온 삶을 거울삼아 조상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려 애쓴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여인은 가족들에게 의미가 되고 뜻이 된다.

누군가는, 손에 닿는 것에 길들여진 우리는, 하와, 마리아, 밀려난 여인(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너를 취급해서... 나는 너에게 창피하다!” 드라마에서(요즘 핫한) 들은 대사이다. 이미 알고 있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탓,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온 뚝!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별 다름없이 살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너를 취급해서 미안해!”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김용민 레오나르도 신부 | 양덕동 본당 주임



제 1 독 서	탈출 17,3-7
화 답 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 서	로마 5,1-2,5-8
복 음	요한 4,5-42

주일 진레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이래로 쭉 ‘가짜뉴스’가 있었다.”

이진수 스테파노 신부/ 삼계 본당 주임

가짜뉴스는 하느님 말씀을 왜곡한다

사순 시기 전례 안에서 접하는 첫 번째 말씀은 ‘가짜뉴스’에 관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숨(숨 역시 말씀의 출발점이다)을 불어넣으셨지만, 사람에게서 나온 여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짜뉴스’ 양산과 유포에 참여하는 것이다.(사순 제1주일 제1독서 창세 2,7-9; 3,1-7) 하느님 말씀의 결과물인

인간의 말은 이처럼 처음부터 하느님 말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현실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상마저도 왜곡하고 있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셨지만, 더 귀중한 뉘는 당신만을 위해 유보하신다는 것이다. 이제 인간에게 유보된 무엇인가를 손에 넣고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역사가 펼쳐진다.(도미니크 바르텔리, 하느님과 그분의 모상)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다.”(사순 제1주일 제2독서 로마 5,12) 때가 차서 하느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죄의 역사’에 전환점을 가져다 준다.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사순 제1주일 복음 마태 4,4)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신다.(필리 2,6-11)

‘조상들의 언어’는 가짜뉴스에서 해방시킨다

타볼산 위에서 베드로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 주님께서 모세 및 엘리야와 나누는 대화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 하는 사실(사순 제2주일 복음 마태 17,1-9) 역시 같은 맥락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뵤 대화에 끼어들려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 걸돈다. 대화의 차원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구사하는 언어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처음부터 대화 밖에 소외된 채 서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따르면, ‘조상들의 언어를 구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람의 말은 ‘조상들의 언어’를 배우고 구사함으로써 가짜뉴스라는 악순환에서 해방될 수 있다. 마카베오기 하권 7장의 어머니는 죽음을 앞둔 일곱 아들을 상대로 하나 하나 ‘조상들의 언어’로 대화한다.(특히 21절과 27절) 이 대화에 세상을 대표하는 박해자 임금 안티오코스는 제외된다. 다른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끊임 없이 현실을 왜곡하며 하느님 말씀에 대적하는 임금을 상대로 어머니는 ‘조상들의 언어’로 하느님 말씀을 전하며 상기시킨다. 전하는 내

용과 형식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룬다. 조상들의 언어는 하느님 말씀, 곧 ‘율법과 예언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머니는 순교라는 ‘타볼산’ 위에서 ‘조상들의 언어로’ 모세(율법)와 엘리야(예언자)와 대화한다. 타볼산 위의 주님에 대한 전형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결국 가짜뉴스에 의해 구축된) 기존의 것들과 결별하고(사순 제2주일 제1독서 창세 12,1-4~)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마태 17,9) 베드로가 타볼 위에 지으려 했던 ‘초막 셋’(17,4)은 가짜뉴스의 결과물에 대한 상징이다.

사순 제3주일 하느님 말씀들은 ‘목마름’과 ‘물’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실상 하느님 말씀이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다. 복음 말씀에 목마른 여인이 하나 등장한다. 얼마나 목이 탔으면, 남자가 다섯이나 있었겠는가? ‘신약판 팜므파탈’이라고나 할까. 사실 그녀에게 먼저 다가온 것도 주님이시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는 상처를 남기고 돈은 이자를 남긴다.”는 한 유명 여배우의 대사처럼 가짜뉴스에 기반한 현실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맛본 자이다. ‘이번에도 역시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 거리’를 둔다. 스스로의 실망을 통해 가짜뉴스가 아닌 하느님 말씀에 뿌리를 둔 참 현실만이, 진리만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짜뉴스의 양산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였던 그녀는 일종의 순교자로 거듭난다. 그리스어 martyria는 증거와 순교를 동시에 의미한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루살렘 vs 사마리아’라는 프레임을 양산하고 그 안에 갇히는 데 동참하였다. 그러나 말씀 자체이신 분을 만난 지금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대신 진리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 말씀 자체이신 분을 만나 ‘조상들의 언어’를 배우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했다.

‘조상들의 언어’를 전하는 것은 자선의 극치이다

이렇듯 가짜뉴스에 기반한 역사는 필연적으로 순교로 정향 되어 있다. 말씀 자체이신 분의 순교로 이끌고 있다. 가짜뉴스에 기반한 말이 안 되는 거짓 현실에서 진리는 항상 순교로 스스로를 증언할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역사서>의 대미가 순교이야기로 장식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리를 내어준 사순 시기이다.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확산될 위험과 파급효과가 큰 것이 바로 가짜뉴스이다. 나는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조상들의 언어’와 얼마나 연관되는가? 가짜뉴스로부터 ‘단식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어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상들의 언어’를 전하며 ‘자선을 행하는’ 사순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빵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이기에 서로에게 조상들의 언어를 전해주는 것이야 말로 자선의 극치이다.

빈 무덤 안에서 보내는 사순 시기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본격적인 유행과 더불어 미사가 잠정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우리는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마치 그이의 몸이 사라진 빈 무덤 안에 들어와 기약 없는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감염의 공포가 내려 앉은 어두운 무덤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루만질 수도, 얼굴을 맞댈 수도, 밥상을 마주할 수도 없다. 긴 시간 홀로 암흑을 대면해 본 이들은 알 것이다. 빛이 사라진 적막한 공간 속에 침잠하면 민망할 만큼 낯낱이 들여다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어쩌면 이 시기는 빛의 저편에 숨어 있던 우리 내면의 어둠을 비로소 응시하게 하는 깊은 초대인지도 모른다.



Christ's Descent into Limbo, woodcut by Albrecht Dürer, c. 1510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그이가 묻힌 그날, 죽음을 목도한 이들의 가슴속에도 감염증이 지나간 텅 빈 거리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것이다. 그들은 슬픔과 수치와 두려움에 눌려 몸을 숙이고, 오늘 우리처럼 낯낱이 드러나는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시간 그이는 흉터 가득한 몸을 끌고 무덤을 떠나 어딘가로 향한다. 가톨릭 사도신경의 한글 번역은 ‘저승’에 간 것으로 전하는데, 이 ‘저승’이라는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 ‘저승에 가시어’라는 표현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사도신경은 “κατελθόντα εἰς τὰ κατώτατα”로, 직역하면 “낮은 자들(κατώτατα)에게 가시어”다. 즉, 장소 개념이 없다. 라틴어 번역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 ‘inferna’ 혹은 ‘infernium’ 등 저승으로 번역되는 장소 개념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 바티칸에서 인정한 표현은 ‘descendit ad inferos’로, 그리스어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낮은 자들(inferos)에게 가시어’로 해석된다. 한글과 영어를 비롯한 많은 번역에서 굳이 장소 개념을 차용하는 이유는 히브리 성서와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세울, 하데스 등 사후세계 개념과 맥락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에 가까운 번역에 따르면

그 밤, 숨 막힐 듯한 적막 속에서 그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1베드 4, 6) 향한 곳은 땅 밑 어딘가에 위치한 저승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 천대와 팔시 끝에 버림받은 가난하고 여원 사람들이다. 하긴 아직 살아있으되 채 살지 못하는 이들, 이미 죽었으되 차마 죽지 못한 이들이 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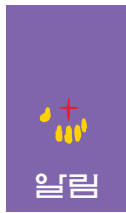
곳은 삶과 죽음이 겹친 곳, 림보(limbo, 古聖所) 혹은 저승과 다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성토요일 옛 전례문에 따르면, 무덤을 비운 밤과 낮 그이는 가장 낮은 이들에게 내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이렇게 말한다. “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네게 빛을 주리라.”

감염증의 첫 희생자가 된 고인을 우리는 청도 대남병원의 ‘무연고자 A씨’로 기억한다.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서 살아있으되 살지 못했던 A씨와 다른 여섯 명은 고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무연고자’들로 우리의 기억에 남았다. 그들은 감염증의 희생자이기 이전에 차별과 혐오의 희생자들이다. 우리 사회가 만든 림보에 갇혀 자신의 한평생을 거부 당하고도 부당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결국 죽음을 맞았다. 그들이 고열과 기침으로 죽어가던 날 조차 우리는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전가했지만, 그이는 묻히던 그날처럼 무덤을 떠나 바로 그 낮은 곳 낮은 이들, 대남병원의 무연고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알브레히트 뉘러의 판화에서처럼 무릎을 꿇고 팔을 뻗쳐 쓸쓸한 이들의 영혼을 건져 올렸을 것이다. 너무 늦게 우리에게 들려온 ‘무연고자’라는 가련한 이름은 어쩌면 그들이 림보에서 올라와 그의 가슴에 안기는 순간 터져 나온 가느다란 탄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무연고자’, 그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닿아 어떤 의미가 되기를 요구한다.

혐오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감염증 확산과 더

불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병폐는 혐오다. 초기에는 중국인들과 재한 중국인들을 공략하던 혐오가 요즘에는 특정 종교와 관련된 이들을 향하고 있다. 물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을 방기한 채 불합리하고 비겁한 행동을 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잘못을 따지기 앞서 안타깝고 부끄럽다. 그 종교를 믿는 대다수의 신자들이 다니던 교회에 실망하거나, 혹은 신앙적 호기심과 열정을 발산할 곳을 찾다 결국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또 그 많은 이들이 그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이유가 사람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배려에 감동해서였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왜 우리는 그들의 호기심과 열정을 품지 못 했으며, 그들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들을 더 혐오하고 배제하고 고립시킨다면 그들은 결국 유명처럼 사회의 낮은 곳을 떠돌다 그들만의 림보에 영영 갇혀버릴지 모른다.

대남병원의 무연고자들과 신천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둘다 빈 무덤의 어둠 속으로 소환된 우리 자신의 그림자요, 어둠이다. 우리의 혐오, 차별, 배제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낮은 자들의 삶을 파괴하다 이제 이 빈 무덤의 시간에 당황스러울 만큼 많은 숫자의 죽은 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숫자로 말이다. 이 빈 무덤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둠과 그림자를 마주하지 못한다면, 짝어 내고 도려내기보다 성찰하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파스카의 새벽이 밝아 다시 제대 앞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무덤을 비운 채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잃어 버린 양들을 찾고 있을 것이므로.



교구장 동정

춘계교회의

일시: 3월 16일(월)~20일(금)

장소: CBCK

교구/본당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장: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곡 연주회를 위한 교구합창단원 모집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연습: 매주 (화) 19:30~21:30

문의: 단장 010·3868·9136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맛있는 복지관 식당(조리 및 배식)

청소년 방과후 교실

자기결정 및 옹호프로그램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055·247·5195~7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마산 새속 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자격: 만 50세 미만 남·여신자

시기: 5월 셋째주일 후 월요일

문의: 회장 010·8525·1150

기타

함안 안나의 집 입소 안내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1~4시설 등급자

주소: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 (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신청: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검색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1@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응모자격: 등단하지 않은 마산교구 천주교 신자

•응모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응모마감: 2020년 9월 30일 도착분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원 (소설 70만원)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품격 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6월 19일	알프스 수도권 순례 오스트리아(3박) 독일(2박) 스위스(5박)	12월 489만원
--------	---	--------------

본도여행사 02.852.852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 신문 광고 중

1588-5335

마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침묵의 성인, 성 요셉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교회는 3월이 되면 성 요셉 성월을 지내면서 그 신앙의 삶을 되새기며 그분의 성덕을 본받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1562년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할 때,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수녀원이 성 요셉께 봉헌되기를 원하시고 성인의 현존을 약속하신 이래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 요셉께 특별한 친밀함과 신심을 지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서 성 요셉의 전구로 치유를 체험한 성녀는, 기도 여정에서 영적 진보와 구원에 관하여 성 요셉을 수호자, 변호자, 기도의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특히 성녀는 복음서에 나오는 한평생 침묵으로 일관된 성인의 숨은 삶으로부터 기도와 관상 생활에 관한 중요한 영감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일치하게 하는 기도와 관상은 하느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들을 수 있고, 사랑할 때 서로 듣게 됩니다. 사랑의 삶에 헌신한 성 요셉은 이 세상에서의 고된 순례의 삶 동안에 자신 앞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꿈에 천사가 전한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복음적 의로운 삶의 열매인 침묵과 하느님 말씀에 대한 충실함, 신비에 봉사하는 자세, 겸손하고 숨은 생활, 나자렛에서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깊은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신 성 요셉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 계약의 충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성 요셉의 정신은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교회와 영혼들의 구원과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봉쇄의 깊은 고요와 침묵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되새기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곁에 머무르게 합니다. 늘 하느님과 일치하여 사랑으로 하나된 나자렛 성가정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기도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성녀 테레사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의 심장’으로서 사랑의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녀원의 성 요셉상 앞에는 촛불이 밝혀지고 우리는 둥글게 모여 함께 성가를 부릅니다. 한 영혼이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깊이 결합되면 될수록 그만큼 교회의 영적인 변화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시고 주님 은총의 힘있는 전달자이신 성 요셉께 우리 역시 인류 구원의 충실한 협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